

✓ 진로교육 바로 알기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지도

[1] 자녀의 고등학교 시기 이해

고등학교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 목표**를 세워 **이루어나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치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해 스스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진로에서 학업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면, 계열 및 학과 결정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자녀가 아직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면,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자녀가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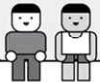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글 쓰는 순서

1. 자녀의 고등학교 시기 이해

2. 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

✓ 진로상담, 똑..똑..



아이의 꿈이 자주 바뀌어요

Q) 저희 아이는 꿈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어느 날은 교사, 어느 날은 PD, 또 어느 날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물어볼 때마다 하고 싶은 것이 계속 바뀌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A) 꿈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해당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일단 결정해버리는 다소 성급한 태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했으니 그 결정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지요.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꿈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막상 결정을 하고 보니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그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잠재력)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 이런 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조급함이 크면 일단 뭐든 결정하고 보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유는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께서는 진로를 좀 더 여유 있게 탐색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자녀가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후에는 관심 있는 직업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도록 해주세요. 관심 있는 직업들을 적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설득력 없고 즉흥적인 것이라면, 그 직업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교적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직업들을 압축시킨 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과 그 직업이 요구하는 특성 간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 자신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 직업 경로 이야기

'만화가, 특히 스토리 작가로 창작 활동을 해요' - 홍용훈(만화가)

■ PD처럼 뭔가 창작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용훈 씨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다. 글도 곧잘 써서 국어선생님께 글쓰기 훈련을 따로 받아 글쓰기 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또한 장르를 불문하고 책도 많이 읽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기차나 PD를 꿈꾸었기에, 자연스레 대학교 신문방송학과로 진학했다.

■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걸 하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니 IMF가 터졌고 모든 취업 길이 막혀버렸다. PD의 꿈도 멀어졌다. 그래서 용훈 씨는 PD가 되기 힘들다면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하자는 생각을 했다. 그때, 군대에 가기 전 6개월간 만화 문하생 생활을 한 것이 떠올랐다. 창작하는 일을 좋아하니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 용훈 씨는 우선 만화 관련 모임의 간사를 맡아 일했다. 그 뒤에는 출판사에 들어가서 편집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문 연재나 작품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스토리 작가로 『KBS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8년째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창작자로서 기반을 다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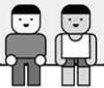
■ 만화의 스토리 작가로 일해요

만화가라고 하면 보통 그림과 글을 모두 창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가 함께 만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용훈 씨는 주로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며, 그 일로 소득을 낸다. 이 외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요즘은 만화 매체 비평 분야에 흥미가 생겨 대학원 공부도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림 창작도 꾸준히 하고 있다.

용훈 씨는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그림을 많이 그려 봐야 하기 때문에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지식과 창작력을 갖추기 위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관련 학과 입학에 위해 요구되는 성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성적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노력을 계속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미술 분야(2013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

✓ 진로소식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앱(APP) '맘에쏙 진로' 출시



「맘에쏙 진로」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학교 선택 등 진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든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주요 콘텐츠>

- 부모-자녀 설정을 통해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 자녀의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결과 확인
-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를 위한 진로상담 신청
- 자녀의 학년에 따라 진로교육에서 부모의 역할과 진로지도 팁, 진로 및 진학 정보, 지역별 진로체험 등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길라잡이
- 학부모 대상 진로정보 소식지 드림레터
- 학부모와 전문가가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 진로 레시피
- 생생한 진로정보를 담고 있는 진로동영상
- '미래의 직업세계' 등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진로정보를 담은 전자책 제공

'맘에쏙 진로' 다운로드 방법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용

: 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실행 → '맘에쏙' 또는 '맘에쏙 진로', '커리어넷'으로 검색하여 설치.

[아이폰]



아이폰용

: 내 스마트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앱스토어 실행 → '맘에쏙' 또는 '맘에쏙 진로', '커리어넷'으로 검색하여 설치.

✉ 진로 관련 소식(행사, 기관, 정보 등)을 dream@krivet.re.kr 로 알려주시면 지면에 소개하겠습니다.